

104호 문제학생 다루기 4

지난 3호에 걸쳐 말씀드린 문제학생을 대하는 기본 방침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규칙은 엄하게, 대인관계는 부드럽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학생이 교수님 연구실에 오면 꾸짖지 마시고, 명령보다 부탁하는 말투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학생이 버릇없이 굴면 따끔하게 야단치던지 벌을 주어야지, 협조를 부탁해?! 이건 스승으로써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오."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적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70년대에 한국교포들은 우스개 소리로 자신들을 "엽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저는 이 "엽전"이란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선친께 말의 유래를 물어보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조선인은 엽전같이 속이 텅 비었다는 뜻으로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알잡아보는 비유였을 것이라 짐작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엽전이란 겉은 둥글둥글하되, 속은 네모 반듯하지 않은가. 그러니 사람이 엽전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꼬. 모가 나지 아니하여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되 마음속은 정직하고 반듯하여 지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엽전은 분명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둥근 겉과 네모난 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엽전에 비유된 한국인은 너무나도 다른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듯 학생에게 명령보다 부탁하는 말투로 대하는 것이 부드러운 일인지 찢찢매는 것인지 또한 생각하기 나름인 듯 싶습니다.

"엄한 규칙과 부드러운 대인관계"는 외유내강이란 말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할 때 똑같이 적용되는 교육의 기본 방침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편집 코너>>

"새시대 교수법" 전자주간지를 시작한지 만 두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께서 널리 소개하신 덕에 "새시대 교수법"을 받아보시게 된 구독자가 무척 늘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주간지를 애독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호가 올해로써 마지막 호가 되고, 정월 18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새해에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조벽 드림.

2000.12.

© 조벽, 2000